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0

2016. 2.14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
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
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1)

오늘의 주요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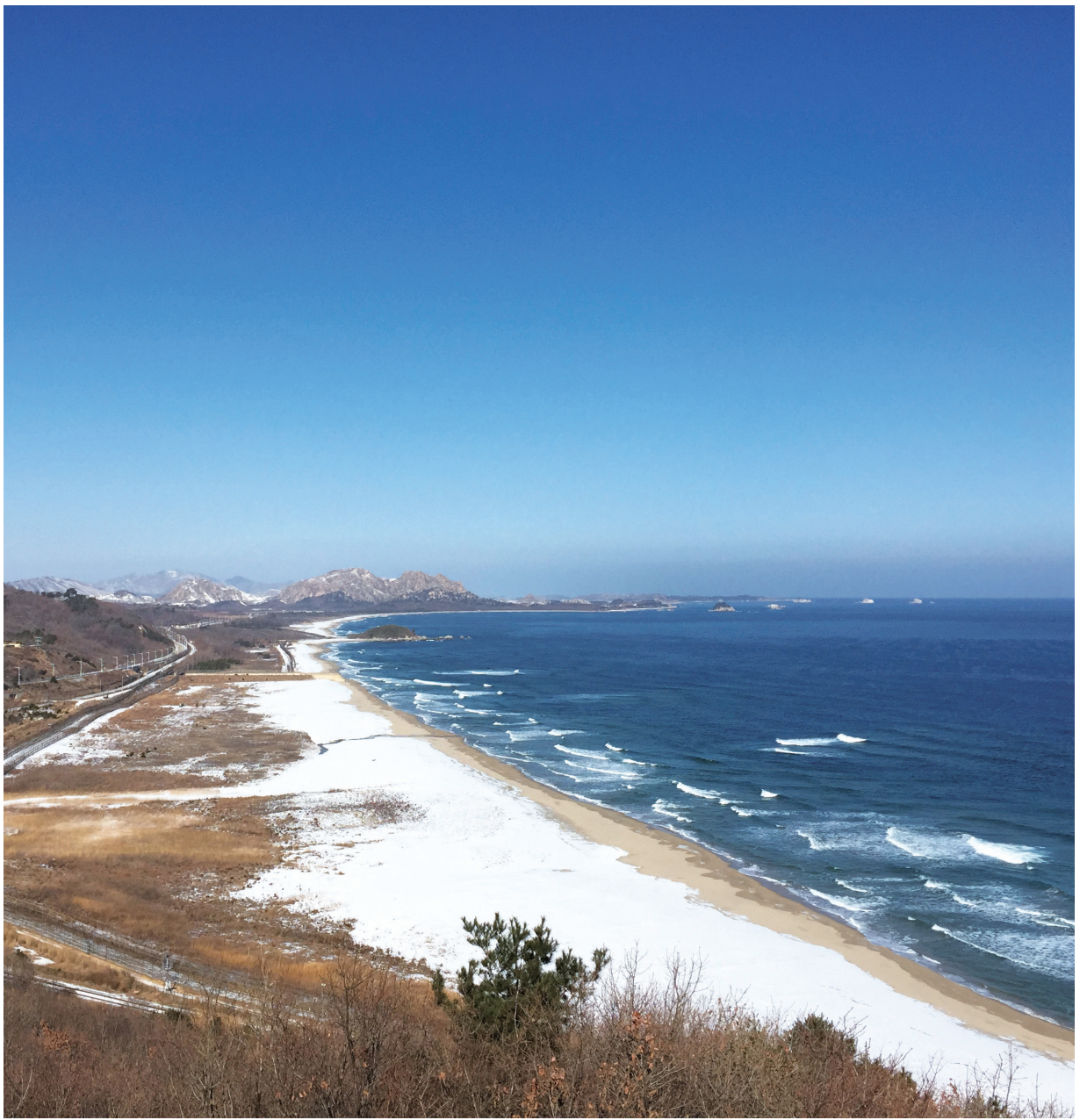
- 2 너나들이 MT
- 3 겨울수련회
- 4 부리도생각 / 직분자 소감
- 5 제직부서소개
- 6 통일선교를 다녀와서
- 7 목회 칼럼
- 8 신임서리집사명단

교회 일정

- 2/15(월) 정기당회
- 2/19(금)~20(토)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3/6(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에 서니 금강산 자락이 희미하게 보인다. 식당과 숙박건물이 어지럽게 들어선 남한의 해안과 다르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눈 덮인 해금강의 해안선이 아름답다. -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앞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할 그 날을 위하여

주님의교회는 2016년을 매우 뜻 깊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출5:3)”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 특별새벽기도회 부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글함울’(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에서 말하는 ‘함께’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선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통일선교사역 중에는 하나원사역이 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적응을 위

해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그들은 가장 최근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고생을 겪고 매우 어렵게 남한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패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은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돕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역이 바로 하나원 사역입니다. 하나원부는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출발합니다. 하나원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간단한 신원 조회를 마치고 곧장 예배 장소로 갑니다. 집회실에는 이미 신앙

을 가진 분들과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원생 가운데는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원생들을 고려하여 쉽게, 그러나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 하나원부 성도들이 간단히 인사를 하면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 집니다. 이 때 양육교재를 가지고 인도하면서 하나원생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법률 상담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용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한 청년들은 어린이 사역을 돕습니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지난번에 저는 탈북여성 네 분을 만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중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와서 기도가 매우 깊었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은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아들을 데려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년 아주머니는 매우 속상한 상태였는데, 자기만 집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딸의 혼인 신고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원을 나가면 어디를 가냐며 울먹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다음날 통일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분에게는 기쁜 일이 있는데, 두 딸이

지금 북한을 탈출하여 안전하게 모처에 대기해 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밤에 같은 방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원을 나가서도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 그 시간과 그 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 말 그대로 하나원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원부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할 그 날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허준 목사

하나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남북청년들 - 너나들이 MT

매주 너나들이 모임을 하고 있지만 서로 동무가 되어 너나들이가 되는 시간을 좀 더 특별하게 가져보기 위해서 1박2일로 가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자라섬 이화원(나비박물관)을 방문했던 시간과 이튿날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뒷산을 올랐던 시간은, 각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을 얻으며 교제했던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모두들 대항 게임을 하며 저녁요리 재료를 받아오고 함께 요리하며 식사교제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떡을 떼며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고 서로가 가진 장



점을 교환해보았던 시간과 가치관 경매의 시간은, 나와 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인생

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와 너나들이 시간을 통해 기도와 성경공부로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은, 장차 주님께

서 한반도에 이루실 복음통일을 미리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한 청년들 각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짧지만, 목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통일선교팀 섬김이 청년들의 헌신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계속 교제해나가며 통일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각자를 향한 사명을 발견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너나들이 :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 동무 :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김윤미 청년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4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海獺皮(해달 피 : 해달의 가죽)

붉은 물 들인 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출애굽기 26:14)

海獺(해달)의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족제비 과의 바다짐승이다. 몸길이는 1m가량이며 꼬리가 아래위로 납작하고 뒷다리가 길며 발가락이 물갈퀴로 돼있다. 두꺼운 지방층이 없어 촘촘한 털가죽으로 보온한다.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면 주

야간 기온변화를 견딜 수 있고 광야의 모래바람 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수가 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성막지붕을 덮는 내피는 얇고 부드러우며 붉게 물들인 솜양의 가죽인데 반하여 외피 덮개는 거칠고 물들이지 않은 해달의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나라의 겉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보일지라도 속사람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海(바다 해. 넓을 해) : 水(물 수)의 변형체 𣶒(삼수 변)와 每(매양 매. 늘 매)의 합자로【물이 마르지 않고 매양 가득한곳은 바다이다. 이러한 바다가 넓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獺(해달 달. 수달 달) : 개 또는 짐

승을 대표하는 犬(개 건)의 변형체 犴(개 사슴 록)과 기대거나 믿는다는 뜻을 지닌 賴(의지할 퇴. 힘입을 퇴)를 합쳐【짐승 중에서 물고기를 몰아오도록 길들이면 믿고 맡길만한 것이 해달, 수달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皮(가죽 피. 껍질 피) : 언덕 또는 덮혀 있음을 뜻하는 厽(언덕 한. 민엄호 엄)과 연결과 분리 또는 꼬챙이로 찢어 꿰뚫다의 뜻을 지닌 𠂔(위 아래로 통할 곤. 뚫을 곤)과 손을 상징하는 又(또 우)의 합자로【짐승의 몸에 덮인 것을 도구로 찢고 손으로 벗겨낸 것이 가죽이다. 이러한 가죽이 동, 식물의 껍질이다】라는 뜻이 되었다. 갓 벗겨낸 날가죽은 皮이고 털을 벗겨 무두질한 가죽은 革이며 제품화한 가죽은 韋이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28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목마르지도 않게 매주일 이른 아침에 물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줄

청년부 겨울수련회

주님이 내미신 손

2015년, 저는 방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 더욱 주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에 주님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청년부 겨울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부정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저 묵묵하게 계속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음을 깨달

았습니다.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던 시편 139편 9~10절 말씀이 저의 고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에 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은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외치고 합니다. “내 온 맘과 몸 구석구석 전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승원 청년부



고등부 겨울수련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19살에서 20살. 고등학생에서 사역교사.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김 하는 자리. 이런 과도기에 ‘사랑과 섬김’을 주제로 한 고등부 수련회는 나에게 선물과 같은 경험이었다. 학생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힘에 의한 공동체의 유대를 경험했고, 고등부 학생들과 사역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처음으로 울어보기도 했다.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고3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못 나간 주일이 더 많았는데, 곧 고3이 될 친구들이 수련회에 와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을 반성했다. 무엇보다 나의 위선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김건희 형제님의 경험담은 나를 비롯한 많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판단하는 편인데, 김건희 형제님은 그 경험도 판단의 근거로 부족하다고 하셨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전부를 알기 전까지는,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을 판단해왔던 근거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를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 사역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친구들과 놀러온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는 답답했다. 김건희 형제님은 세상의 더러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더럽혀짐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수련회 기간마저 아이들을 판단한 나를 반성하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던 둘째 날 저녁집회 때 이 제목 하나로 울면서 기도했다. ‘나의 더러운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나고 온 수련회는 끝났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생활과 별개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 나를 비롯한 모든 비전트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다. 오영은 중등부사역교사

중등부 겨울수련회

하나님께로 귀환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환(Return)여행”이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운동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코스학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뜨겁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등부 찬양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어 학원에서 특강을 듣게 되면서 토요일 연습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교회 활동을 포기하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원해서 즐겁게 시작한 공부임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알고 계셨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를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공부가 많이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어쩔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고, 연약한 나

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기에 더욱 확신했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느끼진 못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학원에 오갈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에 활기가 생긴 느낌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열심히 공부해 내가 가지게 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소소한 변화이지만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지금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권세라 중등부

부리도생각

시간과 구원

음력 설이 좋은 것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양력 새해에 가졌던 다짐들, 약속들, 계획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다짐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금 돌아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요구받습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해 단위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새해를 맞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가질 질문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

왔을 때 이들에게 가장 먼저 시간을 바꾸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을 바꾸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의 첫 달을 지금의 1월이 아닌 3월 말이나 4월초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이 때는 유월절이 있는 때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달입니다. 시간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개인의 구원도, 세상의 구원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에 따른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따라 삶의 목표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꾸고, 삶의 과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의 태양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태양을 섬기

는 종이었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가장 거창한 칭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사람은 태양이 종이 아니라 태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태양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태양을 다스리는 삶이며, 태양의 흐름에 따라 태어나고 살다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바꾸라는 말의 뜻입니다. 2016년 새해 들어서 두 번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이 두 번의 바꿈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태

양을 따른 시간이며 달을 따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헌신, 이 땅의 구원을 이룰 헌신, 나 자신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헌신! 이제 음력을 지나면서 3월 말 부활절을 맞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다시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 '부리도'는 주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한강 남쪽에 있던 작은 섬이었으며 새들의 낙원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람된 일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의교회 장로회 한분

한분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성경대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은 어떠한 크나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장로회에서는 올 한해도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

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안이 교우들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한중 장로

한국교회를 선도(先導)하는 주님의교회를 꿈꾸며

애뜻한 마음으로 섬겨온 주님의교회가 어느 듯 28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날들은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권고(眷顧)하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희 제 20대 안수집사회원 일동은 한층 성숙한 미래를 꿈꾸며 도약하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려 합니다. 올해의 사업 목표를 '1인 1사역 갖기 운동'으로 정하고 무거운 사역의 짐을 분담하는데 앞장서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교회는 대략 6개의 위원회와 3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산하 120여 개의 사역팀이 분포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안수집사를 보유하고서도 실상은 제한된 인

원들만 중복사역 팀장을 맡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무장로님 23분도 몇 개씩의 분과위원(장)을 맡아 과중한 업무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인적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연구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명분 있는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충성과 순종으로 칭찬받는 청지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 이끄시는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승수** 안수집사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권사회는 자치회로 1991년 1기 권사임직을 시작으로 2016년 22기 임직까지 은퇴권사 41명을 비롯하여 230명의 권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별로 돌아가며 섬기는데 올해는 2011년 임직한 17기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권사회장 직을 맡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두려움은 사탄의 역사임을 깨닫고 권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겸손과 성실로 섬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권사회를 성장시키셨는데 올해는 기도의 종 정재상 목사님을 담당목사로 지

정하시고 모이기에 힘을 써 기도하는 권사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담당목사님의 영적지도로 권사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타올라 주님의교회가 기도의 제단이 되어 통일과 평화를 향한 새역사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견인차의 역할을 권사회가 하려고 합니다. 병신년 첫 월례회에서 담임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1. 기도의 가치 2. 화평의 가치 3. 돌봄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영적성장, 돌봄사역, 후원사역을 충성함으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장근희** 권사

2016년 제직부서 소개

1.목양위원회

예배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예배1부	이종만	6 새벽기도	손영익
2 예배2부	김낙균	7 세 레	나관주
3 안내1부	이상옥	8 통 역	최영재
4 안내2부	노대홍	9 중보기도	조균실
5 성 찬	남옥련		

음악 분과위원회

부서	대장	부서	대장
1 음악지원부	장순옥	5 임마누엘 찬양대	김중호
2 호산나 찬양대	이승원	6 미시오데이찬양대	최영배
3 시온 찬양대	안성봉	7 할렐루야찬양대	최미현
4 살롬 찬양대	김하방	8 주오오케스트라	유마노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교구행정부	조유경	3 거자씨양육부	송정애
2 소그룹지원부	목기숙	4 은사사역부	변춘석

젊은이(10교구)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운영	박기운	3 지원	설정희
2 사역	신영숙	4	

양육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새가족	김병연	3 양육클래스	방순희
2 가정사역	김명훈	4 피택자교육	조보연

미디어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IT운영부	김복수	3 함글함글	김주현
2 출판홍보	신형섭	4 영상/음향	

2.교육위원회

어린이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하임(아기부)	김화숙 / 김혜숙	10 햇살뜨락(초등1부)	서금란 / 이영란
2 하늘씨앗/영아1부	박향숙 / 이미화	11 햇살뜨락(초등2부)	강응순 / 김현희
3 하늘씨앗/영아2부	최호성 / 김기남	12 아롬드리(소년1부)	정종기 / 박성은
4 싹트네 / 유아1부	최정윤 / 오점덕	13 아롬드리(소년2부)	전선재 / 이은순
5 싹트네 / 유아2부	남현숙 / 김원미	14 아기정원	최귀선 / 전진희
6 담쟁이 / 유치1부	최우철 / 오미혜	15	임연옥
7 담쟁이 / 유치2부	유혜경 / 이봉순	16 어와나 (카비, 볼티, 티앤티)	전종철 박문숙
8 포도나무/유년1부	정성권 / 김명자	17	윤현숙
9 포도나무/유년2부	성순현 / 신명식	18 교육지원1부	이성래 / 엄혜숙

청소년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교육지원2부	손태향	3 비전트리 고등부	김요섭 / 홍기현
2 팝콘트리중등부	김은성 / 김신정		

청년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청년사역지원부	조병길/강정여	3 청년2부	이현식/김영미
2 청년1부	서정하/김영례		

EM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영어예배부	이재덕	3 한국어교실	고광중
2 어린이영어예배부	최영순		

3. 섬김위원회

봉사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주방부	이미영	5 도서실	신영백
2 봉사부	이송도	6 환경미화	탁동원
3 주차안내부	김익훈	7 설만한물가	이은우
4 서점	이성욱	8 결혼예식	유순의

복지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복지사역지원부	김두용	6 사랑나무	탁준한
2 구제부	이문영	7 장애인사역	김용철
3 꿈나무	권이홍	8 전화상담	김미자
4 환경사역	이명기	9 호스피스	소봉순
5 복지	박규택		

* **섬김과 나눔(사)** 사무국장 : 정의영/ 늘푸른대학 : 권성호/ 무료급식 : 조병길(화) 신형섭(수)
독거어르신지원 : 전해영 / 특별구제 : 노대홍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국내선교지원부	황남호	6 법조지원부	이용우
2 군경선교부	이성훈	7 의료선교부	정낙영
3 서부선교부	홍운식	8 주한외국인선교부	
4 동부선교부	이원철	9 이미용	김영희
5 기관선교부	이형구		

문화 스포츠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미술	강정임	4 유소년축구선교부	장수호
2 성극	손경숙	5 사진부	서정하
3 스포츠선교	하태원	6 문화선교지원부	복향수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팀)	부서장
1 통일선교지원부	김경희	3 북한이탈주민지원	신성철
2 하나원부	구태호	대외활동지원부	이병직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팀)	부서장
1 해외선교지원부	김용규	5 중앙아시아	이재홍
2 선교기도부	최정숙	6 미주	정준호
3 비전트리지원부	박석진	7 유럽	노환옥
4 동남아시아	이상선	8 아프리카	안경희

4.국제교육선교센터

국제교육선교센터 운영팀

부서	부서장
1 센터운영	윤성진

교육선교연구소

부서	부서장
1 연구	홍완식

예수친구사역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예친사지원부	민병준	3 신앙훈련	임익수
2 사역훈련	신영숙		

12단계성경연구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성경연구지원부	최영인	3 안내준비	전선재
2 인터넷	김낙균	4	

청소년사역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청소년사역원	이광실	3 반가운학교	이은영
2 학원선교	김경미	4 청소년문화	박정은

해외선교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시간

동계 통일선교 미션트립을 다녀와서

현재 중국에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동포가 약 30만 명 정도이고 이들 모두 국적이 없어 언제든 북송될 것을 염려하여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약 3만 명의 여성이 인신매매되어 어려운 형편의 중국남성과 강제로 결혼해 산다는 보고가 있다.

탈북자매들과 함께

지난해 12월말에 3박4일의 일정으로 단기팀 17명(장년 6명, 청년 마중물팀 11명)은 탈북하여 중국 모처의 교회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20여명의 탈북자매(평강공주)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마침 방문한 시기가 성탄절 행사주일과 겹쳐서 함께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나누었다. 미용팀과 뜨게질팀으로 구성된 장년팀은 한쪽 공간에서는 자매들에게 퍼머와 커트를 하였고 퍼머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뜨게질을 가르쳐 주는 사역을 통하여 자매들에게 실질적인 성탄절 선물을 제공하는 귀한 사역을 하였다. 이미 머리를 했던 자매도 다른 자매가 방금한 퍼머를 보고 다시 퍼머를 하는 일도 있었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야단맞을 각오로 브릿지(염색)를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뜨게질 역시 농한기를 맞아

이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상품화하려는 적극적인 향학열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청년부팀원들은 자매들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여 자매들에게는 아이들에게서 분리되어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점심때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떡으로 떡국을 끓여 자매들을 대접하기도 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현지의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자매들에게 친절엄마로써, 동생으로써, 이모로써 그들의 삶을 깊이 위로하고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주일저녁에는 인근의 한쪽 삼자교회에서 성탄절 저녁공연을 하였는데 주님의교회 청년들은 위업을 걸그룹처럼, 탈북자매들은 모란봉악단처럼 중국교인 앞에서 공연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기쁨도 맛보았다.

수확 네 가지

이번 겨울의 미션트립을 통해 얻은 수확은 첫째, 여름에 집중된 단기선교사역을 필요에 따라 가을이나 겨울에도 다녀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국내 사역팀들이 해외로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향후 다른 국내 사역팀(예를 들어 호스피스팀, 미술팀, 영어예배팀 등)들도 해외선교나 통일선교를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섬김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번 청년팀은 학생들보다 직장인들이 더 많았다. 이는 직장인들도 추석이나 구정 등 긴 휴가기간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이 자매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그녀들이 거주하는 한쪽마을

에 복음이 더욱 강하게 들어가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시간이 더욱 빨라지리라 생각되었다. 끝으로 우리는 교회안에 머물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극히 작고 소외된 우리 동포들과 열방을 찾아가 작은 손길을 내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현식 집사/청년부**

공동체

떡국을 나누는 사랑나무

삶은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들에게 신비로운 빛을 던져줄지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숲속 같은 사랑나무 숲의 길을 걸으며 우리들의 삶이 어느 모퉁이 숲속길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의 빛을 던져주었나?” 생각을 해보니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는 길모퉁이에 온통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랑의 선물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이 자체가 선물인 시간들 설날 사랑나무 예배 후 함께 떡국을 먹으며 서로 은

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진정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작은 주님의 사랑 나눔입니다. **함줄함줄**



초심자가 교회는 만화

	10:30 am 아 2시 예배 가야지
	1:30 pm 아 좀만 더하고...
	1:50 pm 교회도 가까우니까 헛
	2:10 pm 교회를 왜 다니려고 했을까아아악!

목회칼럼

‘숨’의 미학

어느 아이가 엄마와 얼마간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어린 아이가 공방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원치 않든 이 세상에 던져져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 받아 은혜로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 없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대답은, 숨을 잘 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은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들이마셔야 할 것을 들이마시고, 내보내야 할 것을 내보내는 순환 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날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들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들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영적으로 생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활기를 띠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숨"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보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근심, 걱정, 불안, 미움, 욕심 등-을 끊임없이 내보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들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는 모습들-기쁨, 소망, 사랑, 신뢰, 자유함-로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생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들숨, 날숨을 통한 "숨"의 안으로 향한 움직임과 밖으로 향한 움직임은 크리스찬의 삶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깊은 통찰을 던져 줍니다. 크

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는 안으로 향하는 움직임(reflection)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action)이 잘 이루어질 때, "앎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현인이나 교육가들은 이 실천(action)과 성찰(reflection)의 변증법적인 순환을 praxis (프락시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숨"은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하는데 둘 다 "숨,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은 숨처럼, 바람처럼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만물이 숨을 잘 쉬게 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공기는, 숨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숨을 잘 쉬는 나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날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교육의 현장 가운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파트너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숨을 잘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편하게 숨쉬며 살아가듯이, 맑은 공기 속에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맑고 따뜻한 환경 (holding environment)을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문은영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7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5)



1925년 정신여학교에서 개최된 전조선여자하령회

민족분열을 의도한 일제교육령

1920년 3월 사립학교규칙으로 일부 교과목의 제한이 풀려 성경을 가르

칠 수 있었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았다. 상급학교 진학을 불모로 삼아 학생

들로 하여금 식민지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미 일반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중 감리교계 학교들이 일제의 교육령을 수용해 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에 비해 정신, 경신 등 각종학교로 남았다. 일제의 교육령을 수용하지 않는 학교는 장로교계 사립학교로 전체 학교 중 소수가 되었다. 일제와 학제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어지자 이번에는 일제에 대한 비난이, 일제의 교육령을 수용하지 않는 학교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은 물론,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서도 고등보통학교로의 승격을 요구했다. 사회적 일반적 여론도 기독교 교육을 고수하며 일제의 교육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

교에 대해 비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학생들은 고등보통학교로 지정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일으키는 등의 동요가 일어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는 일제가 교육정책의 일부 완화하면서 조장해내는 교묘한 분열정책의 결과였다.

‘시내 연지동에 있는 정신여학교 학생 이백여 명이 동맹휴교’(“貞信女學校 休校事件”, 조선일보, 1922년 12월 14일.)

‘작년 10월 18일에 일어나 여러 가지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 정신여학교 동맹휴교사건이 해결되어 1월 13일부터 개학 예정.’(“貞信女學校의 開學”, 조선일보, 1923년 1월 13일.)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2016년 신입서리집사

1교구	여자	김순향, 김용희, 김창아, 김화선, 손태량, 신현애, 이해경, 전은주, 정구일, 정은아
	남자	고광곤, 박봉희, 박원석, 박현식, 배성준, 양철우, 전종규, 최영대, 한재호
2교구	여자	강성혜, 강정임, 금은주, 김지선, 서정란, 신영미, 우정란, 정은희, 최정선
	남자	김석우, 신광칠, 이순호, 이창원, 최재성
3교구	여자	문차미, 박선영, 이지연, 이한길, 이한나, 임춘수, 최현자
	남자	김경훈, 김재선, 문일홍, 신종범, 이기섭, 이동욱, 전길영, 정인혁
4교구	여자	손인숙, 이선자, 이종미, 이효미, 임현주, 정경미, 조현숙, 최상숙, 홍혜승
	남자	김학재, 단성학, 민윤기, 성경중, 이지훈, 황석진
5교구	여자	두옥순, 서지현, 이연정, 정윤성, 한은희, 홍화진
	남자	김청룡
6교구	여자	김수향, 김지혜, 노은경, 전용숙
	남자	김기홍, 김주택, 남경진, 윤승진, 황성윤
7교구	여자	김명숙, 김승아, 김혜정, 이미정, 정애란, 정옥단, 주은정, 주은주, 최수정
	남자	김후중, 김희균, 박태곤, 이건칠, 이성욱, 이평제
8교구	여자	강선화, 강소영, 고영선, 고유정, 김영화, 김인순, 김혜자, 김효수, 문지연, 백영미, 송숙희, 임정순, 전소영, 조윤정, 조은정, 최유미
	남자	김태익, 박재원, 송기호, 이규원, 정현식, 조성우, 최 웅, 허성욱
9교구	여자	김은자, 김해숙, 남기화, 노성자, 라경은, 류지현, 배영자, 전미옥, 정영모, 정인숙, 조경연, 조신복, 최미경
	남자	김기연, 박준, 유종욱, 이기범, 이승우, 주병권, 최희철, 황상인
10교구	여자	강선영, 강은혜, 김경주, 김선령, 김슬기, 김영빈, 김하림, 김현정, 손혜원, 오민희, 유정희, 이경진, 이지영, 이혜리, 정혜은, 최세라, 한기쁨, 한소리, 황희선
	남자	김범수, 김성곤, 김슬, 박재민, 손제관, 유동훈, 윤연석, 이준완, 정희찬, 조홍진, 주웅걸, 지상현, 채성현, 홍성일
청년	남자	강상욱

 아기나들이


이하준, 이하은 아기

2015년 8월 12일생

1.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2.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3. 신앙과 믿음을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단단한 믿음 가정이 되게

아빠 이지훈 / 엄마 황영신, 2016년 1월 17일 3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알립니다

1.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일시 : 2.19(금)~20(토) 오후6:00(등록 5:30~)

장소 : 중예배실

대상 :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인도자, 권찰

2. 12단계 성경공부7단계 성경과 영성 개강 및 추가 모집

개강 : 2.17(수) 오후 7:15 대예배실

문의 : 홍성욱 목사(010.9431.9910)

3. 입교 및 세례예식: 3/20(주일) 3부예배

신청대상 : 교회등록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2.14~3.13(5주) 오후 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6823.5216)

4.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장소 : 사단법인 각당복지재단 강당(종로구 경희궁1길29)

일시 : 3.10~6.2 매주 목요일 오후1:00~5:00

회비 : 5만원(13만원 중 등록교인은 8만원이 지원됨)

5. 예수친구사역 1학기 개강

일시 : 2.23(화) 오후 7:00 중예배실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6. 늘푸른대학 제8기 입학(등록)

대상 : 만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주민

접수 : 2.21~28(주일) 선착순 250명

장소 : 1층 로비 접수처 / 등록금: 5만원

문의 : 권성호 안수집사(010.7736.0662)

7. 어린이교육목회원 교사워크숍

대상 : 기존 교사, 교사로 섬기기 원하는 성도

일시 : 2.28~3.20 매 주일 오후 2:00 ~ 3:30 초등부실

문의 : 이은선 목사(010.5055.1257)

2016 늘푸른대학 제8기 학생모집

입학 안내

- 대 상 : 만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주민
- 정 원 : 250명 (선착순)
- 등록일자 : 2016. 2/21(주일)~2/28(주일)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 1층 로비 접수처
- 등 록 금 : 5만 원(1년)

특별활동반
(13개 반)

개강 : 2016. 3.8(화)

오전10:30 / 중예배실

성경읽기 반
찬양대 반
교사영어 반
노래교실 반
뜨개질 반
바둑 반
사군자 반
서예성경필사 반
생활체조 반
스포츠댄스 반
시니어에어로빅 반
탁구 반
통기타 반

‘화해’의 간증기사를 보내주세요

사순절을 맞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화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혹은 자신과의 화해를 경험하셨다면,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세요.

- 주제 : 화해의 이야기

- 분량 : 2000자 이내

- 보내실 곳 : hamletter@daum.net

함글함글